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유연수와 결혼한 사 씨는 9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자 유연수는 교 씨를 첩으로 맞는다. 교 씨는 아들을 낳은 이후 사 씨 또한 아들 인아를 낳자 위기감을 느껴 사 씨를 모함한다. 이에 유연수는 사 씨를 내치고 교 씨를 정실로 삼는다.

시비가 사 씨를 계단 아래 이끌고 와 ㉠사당 앞에서 사배토록 했다. 사 씨가 하직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니 모인 친지들이 문밖에서 작별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부인께서는 귀체 보중하세요. 다른 날 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뿐이었다.
 사 씨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죄인을 위해 멀리까지 나와 송별해 주시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다시 만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아를 잘 보살펴 주시지만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유모가 인아를 안고 통곡하니, 사 씨가 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행여라도 내 생각은 말고 새어머니를 잘 섬겨라. 모르겠구나. 언제 너와 다시 만날까?”
 또 탄식하며 말했다.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는 없는 법이니 어찌 네가 여기 머물기를 바랄까? 나의 죄악이 매우 무거워 너에게까지 화가 미쳤구나. 그저 바라노니, 다음 생에 다시 모자가 되어 이번 생에 못다 한 인연을 잇자구나.”
 흐르는 눈물이 인아의 머리에 방울져 떨어졌다. 사 씨가 갑자기 눈물을 거두고 말했다.
 “소사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지 못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따르지 못했는데 어찌 강보에 싸인 어린아이에 연연하겠는가!”
 인아를 건네주고는 가마를 타고 떠났다. 인아가 크게 울부짖었다.
 “어머님을 따라갈 테야.”
 사 씨가 가마에서 다시 인아를 안아 젖을 먹이며 말했다.
 “내 마땅히 내일이면 울 것이니 잘 있거라, 잘 있어.”
 다시 유모에게 건네고 마침내 이별하고 떠났다.
 (중략)

교 씨가 명을 내렸다.
 “이제 내가 안살림을 맡았으니 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너희는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 따르고 화목하게 지내 삼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라.”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몇 명의 늙은 하인이 아뢰었다.
 “사 씨는 여러 해 동안 이 집 안주인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나나 저희가 인정상 마땅히 배송해야겠기에 감히 청하옵니다.”
 교 씨가 말했다.
 “이는 두터운 정이니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느냐?”
 여러 시비들이 일제히 큰길로 따라나서니 통곡 소리에 땅이 진동했다. 사 씨가 가마를 멈추고 차환에게 말을 전했다.
 “죄인을 멀리까지 배웅해 주니 고맙고 고맙네.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 옛 사람도 잊지는 말아 주게.”
 원근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중략)

가마꾼이 ㉡신성으로 향하려는데 사 씨가 차환에게 말했다.
 “바로 ㉢소사의 묘로 가도록 해라.”
 마침내 가던 길을 바꾸었다. ㉣조양문을 지나 곧바로 묘에 이르러 몇 칸 되지 않는 초가집을 얻어 머물렀다. 사방은 황량한 산이고 마을은 쓸쓸하여 아침저녁으로 오직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사 씨 집안 소공자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말을 달려와 통곡했다.
 “여인이 시집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으레 친정으로 돌아오

[A] 기에,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거늘, 누님이 이 빈산에 온 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B] “내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겠으며, 또 어머님의 혼백을 모시고 싶지 않겠니? 다만 생각건대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야. 또 나는 본디 털끝만큼의 죄악도 없고, 한림 또한 현명한 군자니 비록 한때의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어찌 없겠니? 설혹 한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 할지라도, 일찍이 돌아가신 소사께 후대를 받았으니 소사의 묘 아래 늙어 죽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아우는 이상하게 생각지 마라.”

사 공자는 다시 부탁해 봐야 소용없을 줄 알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사내종 한 명과 시비 한 명을 보냈다.

“우리 집에 본디 하인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하인 둘을 뒤 봐야 어디에 쓰겠는가?”

늙은 사내종만 머물러 문을 지키게 하고, 시비는 즉시 돌려보냈다. 이 땅은 유씨 종족이 모이는 곳으로 하인들이 거주했다. 사 씨가 온 것을 보고 문안하여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서로 도우니 죽히 의지가 되었다. 사 씨는 길쌈에 뛰어나 품을 팔아 옷도 만들고 옷감도 짜며 생활했다. 게다가 몸에 지니고 온 약간의 장신구가 있어서 진주와 패물 등을 내다 팔아 부족한 데 보태니 고초가 심하기는 해도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이 무렵, 교 씨는 사 씨가 신성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유씨 집안의 묘로 갔다는 말을 듣고, ‘이는 분명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생각하며, 한림에게 말했다.

[C] “사 씨는 더러운 행실로 조상들께 죄를 짓고서 어찌 감히 유씨 집안의 묘 아래 머무나요?”

“이미 쫓겨난 뒤니 행인과 같아서 동서남북 어디든 마음대로 머물 수 있소. 게다가 그 땅은 비단 유씨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처하는 곳이니 어찌 금할 수 있겠소?”

교 씨가 기뻐하지 않았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27.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 씨는 죄를 지어 유씨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 ② 사 씨는 죄책감 때문에 친정에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 ③ 교 씨는 하인들이 사 씨를 배웅하지 못하게 하였다.
- ④ 사 씨는 사 공자가 보낸 하인들을 모두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 ⑤ 교 씨의 사 씨의 행적에 대해 들은 유 한림은 유씨 집안의 묘에 머물고 있는 사 씨에 대하여 담담하였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사 씨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종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소이고, ㉡은 사 씨가 친정이 있는 장소이다.
- ② ㉢은 ㉣에 이르기 위해 경유해야 하는 장소이고, ㉣은 유씨 집안만이 거쳐하는 장소이다.
- ③ ㉡은 사 씨가 원래 향하려 했던 장소이고, ㉣은 사 씨가 자신의 시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 가려 하는 장소이다.
- ④ ㉣은 사 씨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에 초가집 한 채를 구하여 머무려 하는 장소이다.
- ⑤ ㉠은 사 씨와 자신의 아들과 이별하게 되는 장소이고, ㉢은 사 씨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장소이다.

29.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사 공자의 형제가 서로 의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B]에서 사 씨의 의견을 통하여 이뤄질 것임이 확인된다.
- ② [A]에서 사 공자는 사 씨에게 이유를 묻고, [B]에서 이는 유씨 집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참회를 위한 것임이 확인된다.
- ③ [A]에서 사 공자의 충격은, [B]에서 사 씨의 결정이 유 소사 부자에게 받은 후대에 보답하기 위한 것임을 듣고 완화된다.
- ④ [C]에서 교 씨가 주장한 사 씨의 더러운 행실에 대한 사 씨의 반성하는 태도가 [B]에서 드러난다.
- ⑤ [B]에서 드러난 사 씨의 바람은, [C]에서 교 씨의 시기와 증오로 인하여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임이 드러난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장남이나 선정된 후계자만이 가문의 모든 것을 갖는 가부장제적인 근대 사회상이 드러나는 한글 소설 「사씨남정기」는 중국 명 대의 양반 사대부인 유 한림의 가정에서 벌어진 처첩 간의 갈등을 통하여 축첩 제도와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사 씨의 성격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묘사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봉건적 도덕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가의 한계가 드러난다. 또한, 「사씨남정기」를 지은 김만중은 이를 통하여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권선징악의 결말을 맺는 가정 소설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소설의 유형을 형성한다. 소설 「사씨남정기」는 조선 숙종 대의 왕비 폐위 사건에 대응하여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사 씨는 인현왕후에, 교 씨는 희빈 장씨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왕비 폐위의 부당성을 드러내고,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숙종의 잘못을 일깨우기도 한다.

- ① 사 씨는 집안에서 쫓겨난 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묘 근처로 가고, 교 씨는 사 씨를 모함하고 쫓아낸 데서, 당시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히 구분되는 가정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군.
- ② 유 한림이 아들을 얻기 위해 정실 부인이었던 사 씨 외에 교 씨를 첩으로 들이고, 이후 사 씨도 아들을 얻자, 교 씨가 사 씨를 모함한 데서 가부장제와 축첩 제도의 문제가 드러나는군.

- ③ 유 소사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며느리와 딸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아와 이별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 씨의 성격을 묘사한 데서 당대의 봉건적 도덕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는군.
- ④ 교 씨가 시비에게 명을 내리는 데서,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았음이, 옛사람도 잊지 말아달라는 사 씨의 호소에서, 당시 인현왕후가 백성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는군.
- ⑤ 「사씨남정기」에서 유 한림이 사 씨를 내쫓고 교 씨를 정실 부인으로 삼은 것과 조선 숙종 대의 왕비 폐위 사건이 관련된 것에서, 당시 숙종이 본처인 인현왕후를 부당하게 폐위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이 드러나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三十) 리면
가로막히고

㉠무인공산의 적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여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北)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올려오는 포성 몇 방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구상, 「초토의 시8- 적군 묘지 앞에서」-

(나)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
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